

PA-26

충북지역의 조생종 쌀가루 품종 재배 시 적기 이앙시기 구명이채영^{1*}, 최예슬¹, 이희두¹, 김익제¹, 홍성택¹, 김정곤¹, 우선희²¹충청북도농업기술원²충북대학교 식물자원학과**[서론]**

우리나라의 1인당 쌀 소비량은 61.8kg(18)으로 점차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. 또한 정부에서는 쌀 생산조정제가 시행됨에 따라 타 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. 최근 쌀가루 전용 품종이 개발됨에 따라 밀가루의 소비를 쌀가루로 대체하려고 하지만 수발아에 약한 특성 때문에 등숙기 강우가 지속되는 시기를 회피하고 가공용 쌀을 최대 생산을 할 수 있는 이앙시기를 구명하기 위하여 본 시험을 수행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충북지역 조생종 쌀가루 전용 품종의 적기 이앙시기를 구명하기 위하여 충청농업기술원내 포장과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농가 포장에서 수행하였으며 시험품종(계통)은 조생종인 수원542호, 전주614호 및 전주615호를 사용하였다. 이앙시기는 청주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5회, 보은은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4회 실시하였고, 재식거리는 30×15cm로 손이앙 하였다. 기상요소, 생육특성, 수량 및 수량구성요소, 현미로 도정하여 수발아율 등을 조사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수원542호, 전주614호 및 전주615호를 5월 20일 이앙 시 출수기가 청주에서는 7월 25일~8월 1일이었고, 보은에서는 7월 20일~7월 25일이었으며, 청주에서 6월 30일, 보은에서 6월 10일 이앙 시 출수한계기인 각각 8월 25일과 8월 19일 이내에 모두 출수하였다. 출수 후 40일간 평균온도는 청주에서 22.9~28.9°C, 보은에서 24.6~28.8°C로 이앙시기가 늦어질수록 낮아졌다. 적정 등숙온도가 22.5°C인 것을 감안하면 이앙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었다. 이앙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간장이 길어졌고, 수당립수가 증가하였다. 이앙시기가 이룰수록 조생종은 등숙온도가 높기 때문에 등숙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. 10a 당 쌀수량은 청주에서 세 품종 모두 6월 20일에 이앙하였을 때 5월 20일 이앙한 것보다 2배 이상 증수하였으며, 445~461kg으로 다른 이앙시기보다 높았다. 보은에서 6월 10일 이앙할 경우 389~455kg으로 가장 높았다. 다만 수발아율은 5월 20일 이앙 시 두 지역 모두 40%에 육박하였지만 청주에서 6월 20일과 보은에서 6월 10일 이앙 시 가장 낮아졌기 때문에 충북지역에서 조생종 쌀가루 가공용 품종의 안정생산을 위한 적기 이앙시기는 청주에서 6월 20일, 보은에서 6월 10일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다.

[사사]

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어젠다 연구사업(과제번호: PJ01296004)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.

*주저자: Tel. 043-220-5552, E-mail. metmega@korea.kr